



조선주의 북극항로 수혜,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

Top pick: HD 현대중공업=HD 현대미포

- 신조선가지수는 185.83pt(-0.44pt), 중고선가지수는 185.75pt(-0.01pt)를 기록
- **HD현대삼호**는 그리스 Evalend Shipping으로부터 Suezmax급 원유탱커 2척을 척 당 \$87.0m에 수주
- **한화오션**은 북미 선주로부터 LNG운반선 1척을 척 당 \$252.0m에 수주했으며, 인도는 '28년 3월 예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선주는 한화그룹 북미 계열사로 알려짐
-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북극항로 시대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 56번째로 선정하며 정책적 중요성을 부각. 이에 대한 일환으로 북극항로 국제 컨퍼런스 유치, 쇄빙 LNG선 운송망 구축, 북극권 공동 연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핵심 항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 중
- 북극항로 이용 시 아시아-유럽 운항거리를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 대비 약 30%, 운항 일 수 기준으로는 약 10일 단축 가능.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 빙하가 감소하면서 연중 운항일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
- LNG 수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걸프만)-아시아 항로에서 거리 및 시간, 운하 통행료와 운임 절감에 도움. 현재 파마나운하를 통과하는 LNGC의 평균 통행료는 약 30~50만 달러 수준. 또한 미국이 북서항로(NWP)를 개척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북동항로(NSR) 통행료(쇄빙 서비스 포함)와 같은 비용 절감이 가능
- 먼저 왜 일반 상선으로는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음. 북극항로는 유빙이 많아 일반 상선으로는 항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쇄빙 기능을 하는 '쇄빙선(Icebreaker)'이 필수.** 어느 정도의 쇄빙 기능을 보유한 '쇄빙등급(Ice-Class) 선박'도 있으나, 얼음은 금방 다시 얼어붙기 때문에 갇히면 사고 위험이 있음. 쇄빙기능이 있는 Arc7 등급의 LNGC의 경우에도 최대 2.1m 두께만 쇄빙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결국 쇄빙선이 필요
- 또한 연중 운항가능일수가 확대되어야만 실질적인 운임 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음. 이미 MSC, CMA-CGM, Hapag-Lloyd는 수년 전부터 비용 및 환경문제를 이유로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러시아의 북동항로(NSR)는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며 여름철 상업 운항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쇄빙선대에 더해 원자력 쇄빙선 호송 체계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북서항로(NWP) 대비 상업적 루트인 것은 사실. 하지만 아직도 겨울 혹한기에는 빙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자국 에너지(원유&LNG)를 북극항로를 통해 수송할 수 있는 쇄빙등급(Ice-Class) 상선은 부족. 이를 위해 과거 한국 조선소와 협력이 있었으나, 러-우 전쟁 이후 전면 중단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한 러시아 대사인 게오르기 지노비예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과 조선업 발전 방안 등을 두고 "생산적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힘
- 미국이 북서항로(NWP)를 개척하려면 쇄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쇄빙선대 보유가 선제 조건. 하지만 미국 쇄빙선은 미 해안경비대(USCG) 소속이기 때문에 반스-톨레폰스 수정법(10 U.S.C Section 8679)의 예외조항 발효 혹은 해당 법안에 정확히 대치되는 미 해안경비대 준비태세보장법(Ensuring Coast Guard Readiness Act)'이 승인되지 않는 이상 한국 조선소에게 발주는 불가능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 하지만 예외조항 발효 및 대체되는 법안 승인을 가정해도 **미국이 한국 조선소로 '쇄빙선(Icebreaker)'을 발주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 미국은 작년 7월 쇄빙선 설계기술을 보유한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경험을 보유한 캐나다와 함께 '쇄빙선 건조 협력(ICE: Icebreaker Collaboration Efforts)'을 맺은 바 있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쇄빙선은 **자국 내 건조를 최우선 시** 하며, ICE 협정 국가와의 협력을 우선
- 실제로 미국 의회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북극 쇄빙선 함대 확대를 위한 86억 달러 예산을 배정. 이 중 **중대형 쇄빙선인 Polar Security Cutter(PSC)**는 미국 내 조선소인 Bollinger Mississippi Shipbuilding이 수주했으며, **중형 쇄빙선인 Arctic Security Cutter(ASC)**는 Bollinger Shipyards(미국)&Seaspan(캐나다)&Aker Arctic(핀란드) 3국 컨소시엄과 캐나다 Davie가 입찰 경쟁 중
-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이 쇄빙선대 및 항만 인프라 확보, 그리고 운항가능일수 확대를 통해 북서항로(NWP)를 충분한 상업적 루트로 개발한다면 **글로벌 선주들의 '쇄빙등급(Ice-Class) 선박' 발주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또한 동맹국들과 북극항로 개척 협력 과정에서 필요한 극지연구선 및 쇄빙선 등의 국내외 항 특수목적선 수주를 기대
- 특히 쇄빙LNG선(Arc7) 건조 경험이 있는 **한화오션**과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함께 쇄빙LNG선 및 쇄빙셔틀탱커 건조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던(러시아 국제 제재 이후 중단) **삼성중공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며, 최근 한화오션이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로부터 2,794억원 규모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계약을 수주한 바 있음. **조선업 비중확대(Overweight) 의견 유지**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북극항로와 남방항로 비교



자료: 언론 보도, SK 증권

ICE(Icebreaker Collaboration Effort): 미국, 캐나다, 핀란드

United States, Canada, and Finland Sign MOU to Build Arctic and Polar Icebreakers

Release Date: November 13, 2024

New trilateral arrangement formalizes collaboration on the production of Arctic and polar icebreakers

WASHINGTON - Officials representing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Finland today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to begin working together to develop world-class Arctic and polar icebreakers through the exchange of knowledge, information, and resources in each of our countries. Today's landmark MOU builds off the launch of the Icebreaker Collaboration Effort (ICE) Pact by Prime Minister Trudeau, President Stubb, and President Biden on the margins of the NATO Washington Summit in July.

In signing the ICE Pact MOU, we have embarked on a transformative partnership that strengthens our ability to uphold international rules and maintain security in the Arctic and Antarctic regions. By jointly developing and producing world-class Arctic and polar icebreakers, we are laying the foundation for a resilient and competitive shipbuilding industry, capable of meeting both national and global demand for these critical assets. This arrangement underscores our collective commitment to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Arctic and polar regions, and is a testament to the strength of allied cooperation in addressing strategic challenges.

Each of our nations recognizes the need to enhance our Arctic and polar icebreaking capabilities to assert our collective presence in the Arctic and Antarctic regions. Building these specialized vessels at a faster pace, on a larger scale, and at competitive costs is a shared priority as we uphold safety and security in these strategically important areas.

The ICE Pact includes four components: 1) enhance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Finland; 2) workforce development collaboration; 3) engagement with allies and partners; and, 4) research and development. Given the high costs of shipbuilding, long-term orders are essential for shipyard success in each of our countries. The collective investment in our domestic shipyards has the potential to scale production and reduce the cost of Arctic and polar icebreakers for our own use and for our allies and partners.

By leveraging our collective expertise and resources, the MOU will facilitate knowledge, information, and resource sharing with shipyards, with the potential to create high-quality manufacturing jobs in the maritime infrastructure industry. ICE Pact will help provide the stability necessary to support the production of Arctic and polar icebreakers and strengthen our shipbuilding industries.

자료: 언론 보도, SK 증권

미국(걸프만)-아시아 항로 LNG 선 비교

항목	미국(걸프만)-아시아	
	파나마운하 경유	북극항로(NSR) 경유
운송 시간	20~25일	18~22일
운송 거리	약 16,000~18,000km	약 13,000km
선박건조비용	2.5억 달러	3.3~3.8 달러(쇄빙LNG선 가정)
운하 통행료	약 30~50만 달러	없음
연간 운항 횟수	약 15~18회	약 10~14회
러시아 통제 여부	없음	러시아 통행료 및 통제 가능성 있음
쇄빙선 비용	없음	약 30~100만 달러
기후 영향	없음	겨울철 제한 가능

자료: SK 증권

북서항로(NWP)와 북극항로(NSR)의 연중 상시 운영 가능성 비교

비교 항목	러시아 북극항로(NSR)	미국-캐나다 북서항로(NWP)
운항 가능 기간	연중 운영 (일부 쇄빙선 지원 필요)	여름철(6~10월) 운항 가능, 겨울철 얼음 문제
쇄빙선 인프라	핵쇄빙선(6척) 포함 40척 이상 보유	캐나다 쇄빙선 부족, 미국 쇄빙선 소수
항로 조건	비교적 직선 항로, 대형 선박 운항 가능	좁고 얇은 수로 많음, 항해 위험
항만 및 지원 시설	사베타, 무르만스크 등 대형 LNG 터미널	항만 인프라 부족
정부 지원 및 정책	러시아 정부 적극 지원, NSR 법적 통제	캐나다-미국 공동 관리, 통제력 부족

자료: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훈.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 주요뉴스

합정은 HD현대중공업... '필리핀 호위함' 추가 수주 9부 능선 넘어 (MTN 뉴스 / 25.09.05)

-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과 3천톤급 내외의 호위함 2척 추가 계약을 두고 막바지 협상 중
- 수주는 12월 전에 마무리 될 가능성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OPV 6척 수주한 바 있음

"마스가 투자"...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오션 지분 1.4조원 블록딜 매각 (연합인포맥스 / 25.09.05)

- 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 중이던 한화오션 지분 전략을 처분해 1.4조원 규모의 현금 자원 확보
- 한화그룹은 확보한 자금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중심인 한화오션 관련 투자를 계획. 일부 차입금 상환도 고려

주한 러대사 "한국과 북극항로 개척·조선업 협력 희망" (서울경제 / 25.09.04)

- 주한 러시아 대사가 북극항로 개척과 조선업 발전 방안을 두고 "한국과 생산적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북극항로 운항을 포함해 한국과 조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신조선가 Table

	선종	규모(Size)	단위	2023	2024	Last	Current	증감
Tankers (탱커)	VLCC	320,000	dwt	128.00	129.00	126.00	126.00	-
	Suezmax	157,000	dwt	85.00	90.00	86.00	86.00	-
	Aframax	115,000	dwt	70.00	75.00	72.00	72.00	-
	MR	51,000	dwt	47.50	52.00	48.75	48.75	-
Bulkers (벌커)	Capesize	180,000	dwt	67.00	76.00	73.50	73.50	-
	Panamax	81,000	dwt	35.50	37.50	36.50	36.50	-
	Handymax	62,000	dwt	33.00	34.75	33.50	33.50	-
	Handysize	35,000	dwt	26.93	27.38	26.48	26.48	-
Gas Vessels (가스운반선)	LPG	91,000	cbm	113.50	122.00	118.50	118.00	▼0.50
	LNG	174,000	cbm	265.00	260.00	250.00	250.00	-
Dry Cargo (드라이카고)	Container	23,000	teu	235.50	275.00	270.00	270.00	-
	Container	13,000	teu	158.00	183.00	176.50	176.50	-
	Container	2,750	teu	41.25	43.50	45.00	45.00	-
	Car Carrier	7,000	ceu	97.00	97.00	91.00	91.00	-
Newbuilding Price Index (신조선가지수)			pt	178.36	189.16	186.27	185.83	▼0.44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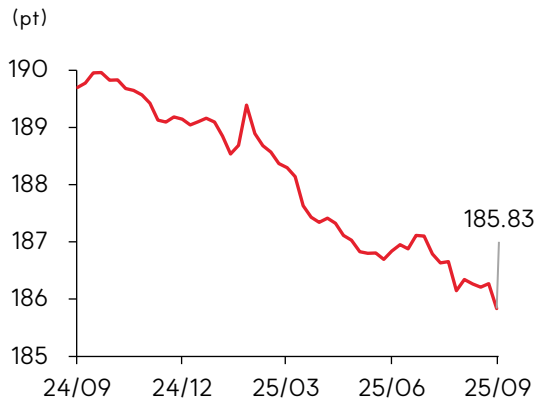
SK증권 조선훈.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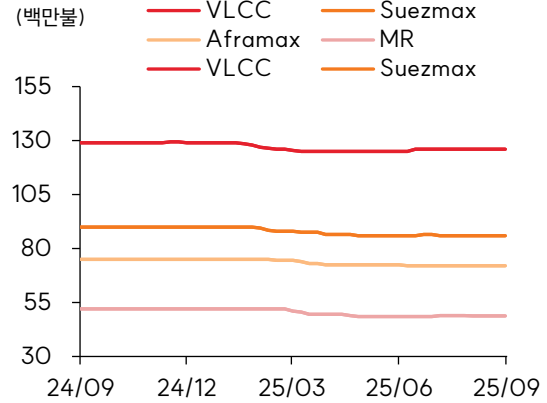
◎ 신조선가 Chart

신조선가지수 (Newbuilding Pric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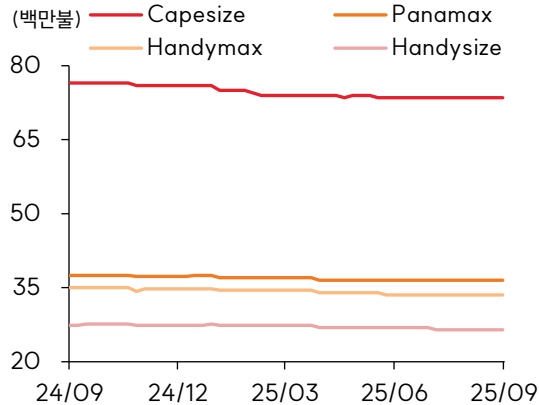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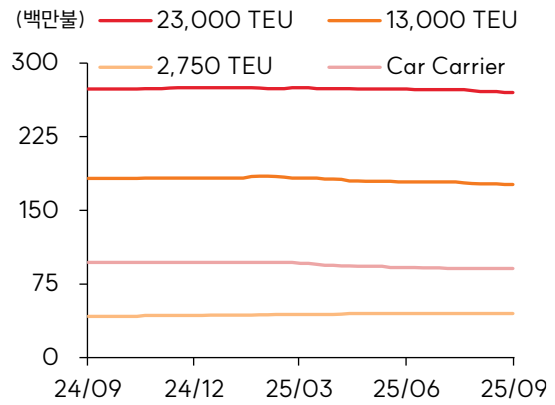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벌커(Bulker)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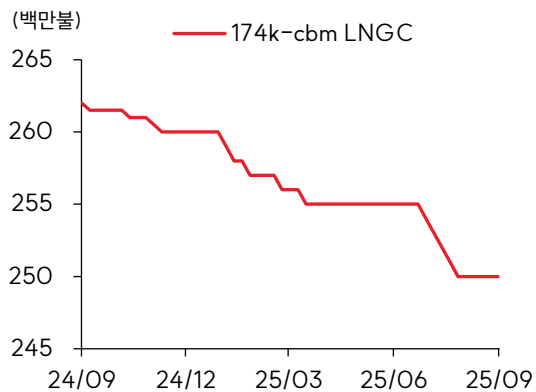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선(Container)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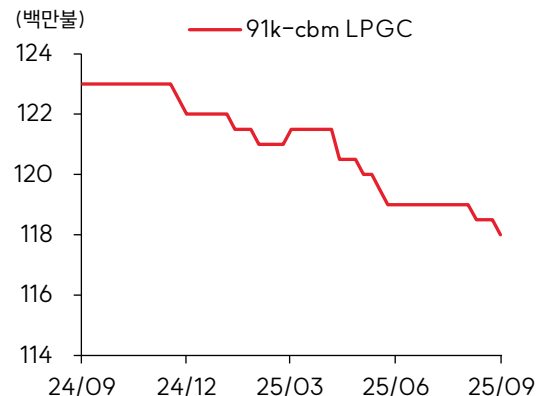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LNG 운반선(LNGC) 신조선가



자료: Clarksons, SK 증권

LPG 운반선(LPGC) 신조선가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 중고선가 Table

선종		규모(Size)	단위	2023	2024	Last	Current	증감
Tankers (탱커)	VLCC Resale	310,000	dwt	130.00	149.00	147.00	147.00	-
	Suezmax D/H Resale	160,000	dwt	95.00	97.00	93.00	93.00	-
	Aframax D/H Resale	105,000	dwt	83.00	82.00	75.00	75.00	-
	Panamax D/H Resale	73,000	dwt	63.00	63.00	58.50	58.50	-
	MR D/H Resale	51,000	dwt	53.00	52.00	52.00	52.00	-
	Tanker Secondhand Index		pt	207.26	203.39	193.93	193.93	-
Bulkers (벌커)	Capesize Resale	180,000	dwt	68.00	75.50	76.00	76.00	-
	Panamax Resale	82,000	dwt	39.50	40.00	39.00	39.00	-
	Handymax Resale	63,000	dwt	37.00	39.00	38.50	38.50	-
	Handysize Resale	38,000	dwt	33.00	34.25	33.00	33.00	-
	Bulk Secondhand Index		pt	172.22	186.83	189.06	189.06	-
Containership (컨테이너선)	Container 10 Yr	8,800	teu	52.00	65.00	81.00	81.00	-
	Container 10 Yr	6,600	teu	36.00	55.00	75.00	75.00	-
	Container 15 Yr	4,500	teu	21.00	40.50	40.00	40.00	-
	Container 10 Yr	2,600/2,900	teu	15.00	31.00	36.00	36.00	-
	Container 10 Yr	1,700/1,900	teu	14.00	21.50	27.00	27.00	-
	Container Secondhand Index		pt	52.06	72.77	81.66	81.66	-
Secondhand Price Index (중고선가지수)			pt	149.07	175.97	185.76	185.75	▼0.01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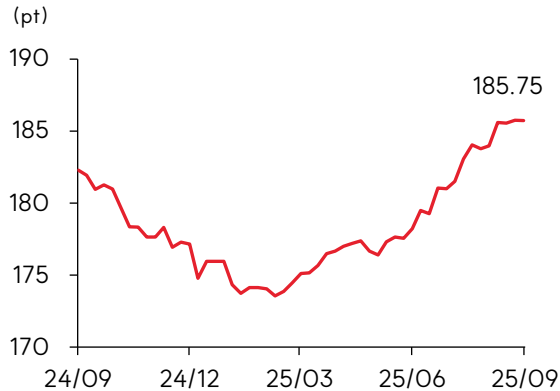
SK증권 조선훈.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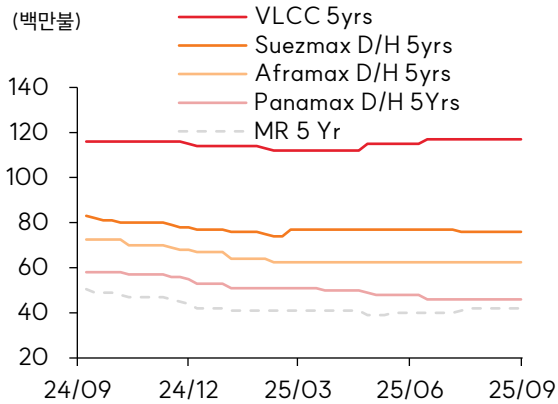
중고선가 Chart

중고선가지수(Secondhand Pirc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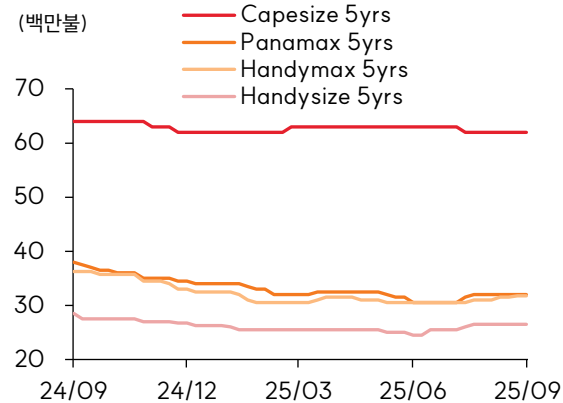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5yr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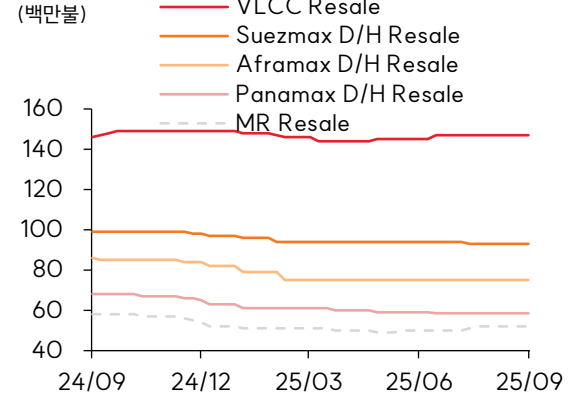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벌커(Bulker) 5yrs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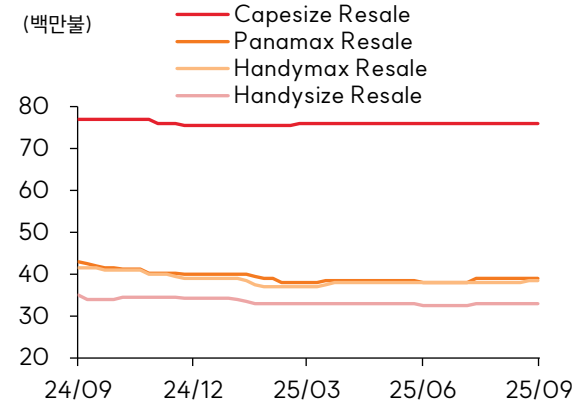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리세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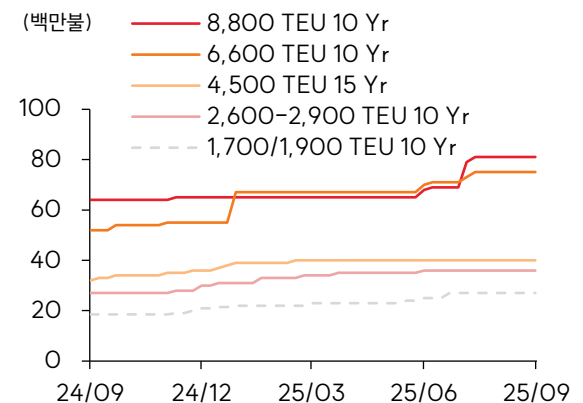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벌커(Bulker) 리세일가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선(Container) 10yrs 중고선가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 신조선 발주량 (Newbuilding Activity)

선종	발주 척 수			2025		
	2022	2023	2024	Last	Current	YoY
Oil Tankers	158	392	444	125	129	-63%
Chemical & Spec. Tankers	112	141	253	73	79	-66%
LPG Carriers	57	113	146	39	42	-62%
LNG Carriers	183	66	93	34	37	-41%
Bulk Carriers	557	632	538	151	158	-69%
Containerships	443	188	380	294	354	12%
General Cargo Vessels	238	252	237	87	94	-61%
Ro-Ro/Car Carriers	93	88	76	4	4	-93%
Reefer Vessels	16	22	5	2	2	-79%
Offshore Vessels	121	91	155	80	83	-38%
FPSO/FSU	7	4	9	4	5	-18%
Passenger & Cruise Ships	48	32	60	33	38	-25%
Other Misc. Vessels	33	12	16	12	14	-29%
Total Contracting	2,066	2,033	2,412	938	1,039	-50%

자료: Clarksons, SK 증권

◎ 중고선 거래량 (Sales&Purchases)

선종		거래 척 수			2025		
		2022	2023	2024	Last	Current	YoY
Tankers (탱커)	Total No. Sales(척)	708	580	408	267	270	-16%
	Total DWT(,000)	66,777	56,769	36,938	29,117	29,351	0%
	Total Value (\$m)	17,990	19,425	14,238	8,879	8,965	-23%
Bulkers (벌커)	Total No. Sales(척)	736	721	799	501	527	-9%
	Total DWT(,000)	50,120	54,817	59,650	36,925	38,734	-11%
	Total Value (\$m)	14,606	12,987	15,299	7,732	8,214	-29%
Other (기타)	Total No. Sales(척)	942	945	860	471	495	-10%
	Total DWT(,000)	17,770	18,597	19,588	9,381	10,009	-23%
	Total Value (\$m)	24,851	19,470	19,922	10,558	11,354	-5%
Total (합계)	Total No. Sales(척)	2,386	2,246	2,067	1,239	1,292	-11%
	Total DWT(,000)	134,667	130,183	116,177	75,423	78,094	-9%
	Total Value (\$m)	57,446	51,882	49,459	27,168	28,532	-19%
	Average\$/Dwt	427	399	426	360	365	-11%

자료: Clarksons,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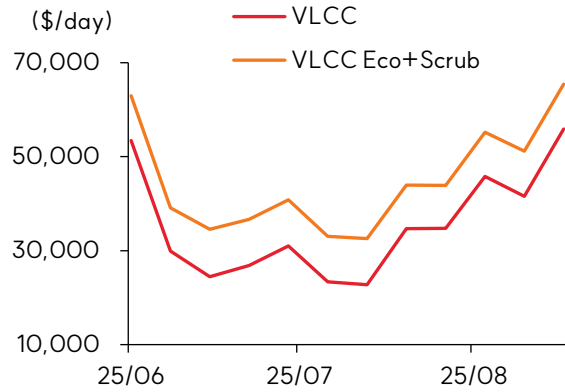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훈. 한승한
shane.han@sk.com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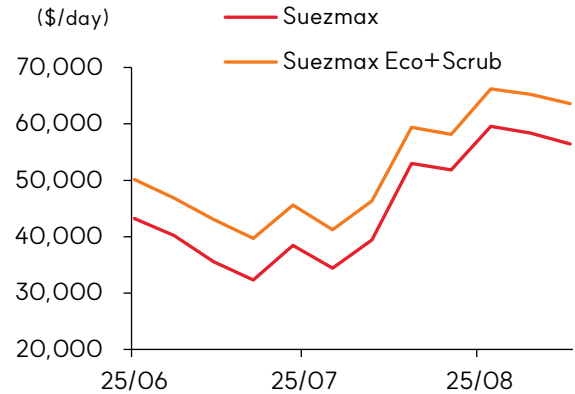
운임 Chart

탱커(Tanker) VLCC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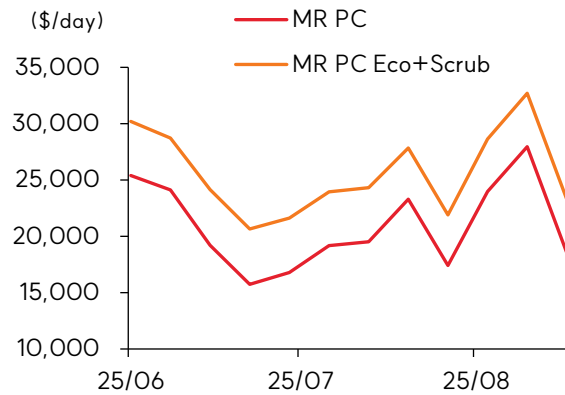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Suezmax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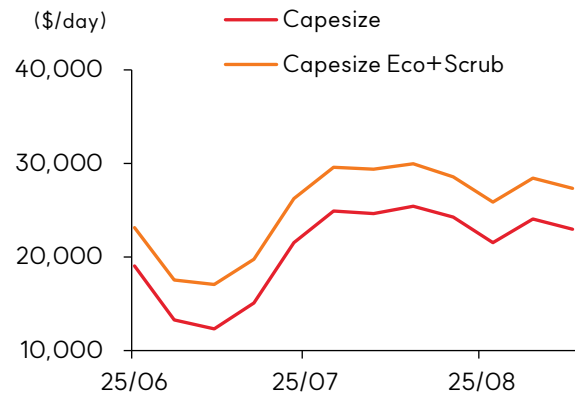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MR P/C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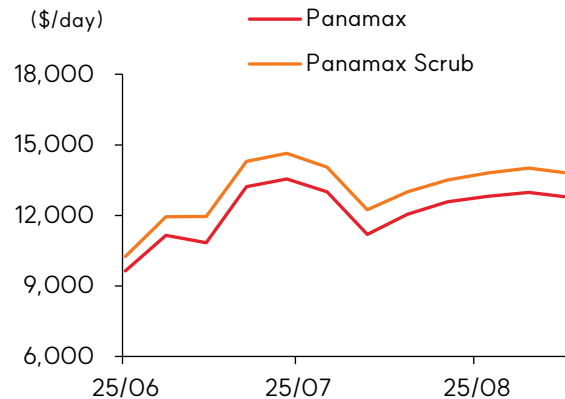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벌커(Bulker) Capesize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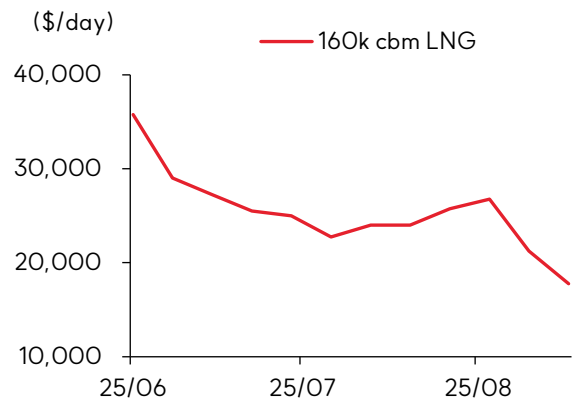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벌커(Bulker) Panamax 운임



자료: Clarksons, SK 증권

LNG 운반선 스팟(Spot) 운임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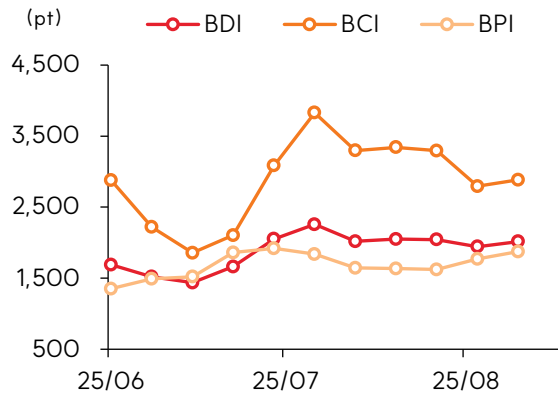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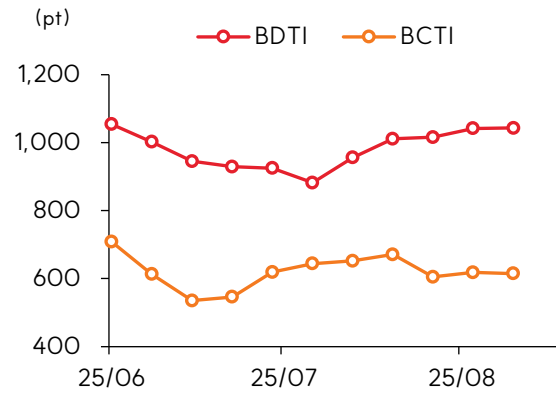
◎ 운임 & 기타 Chart

발틱 벌커(Bulker)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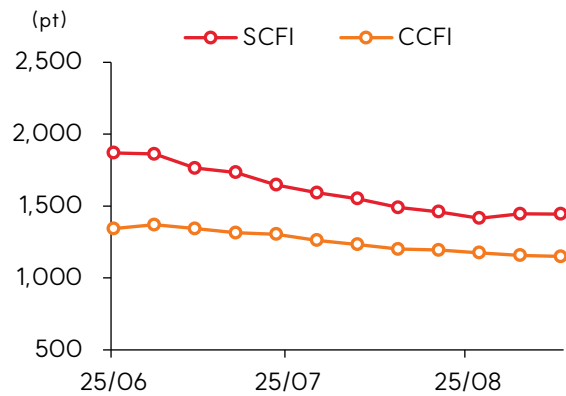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발틱 탱커(Tanker)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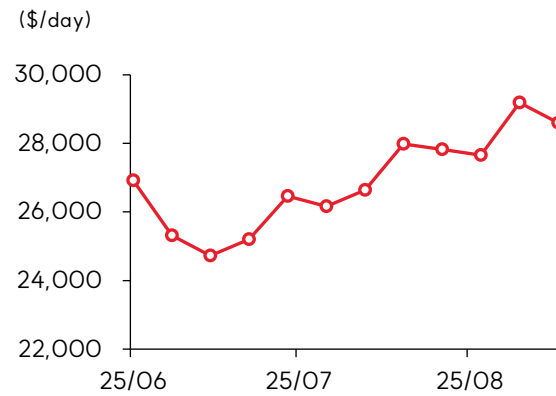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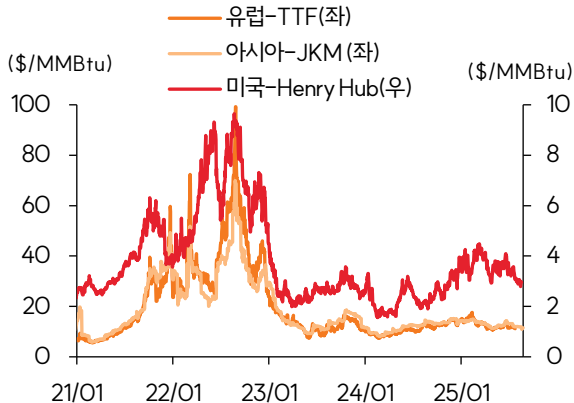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Clarksea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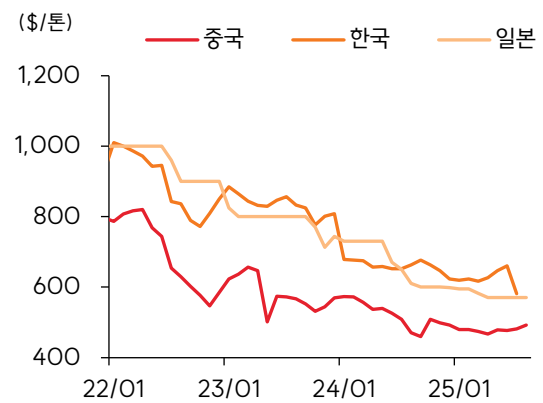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글로벌 LNG 가격



자료: Bloomberg, SK 증권

한/중/일 후판 가격



자료: Clarksons,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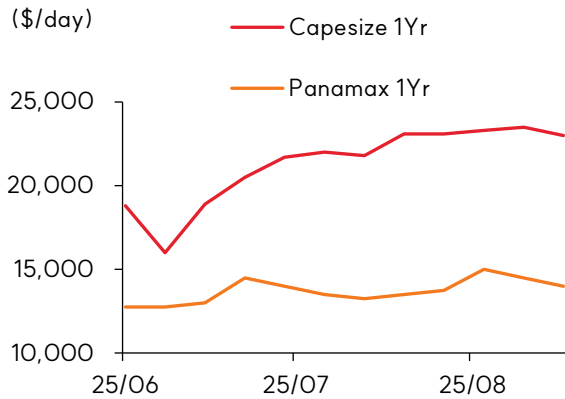
한승한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훑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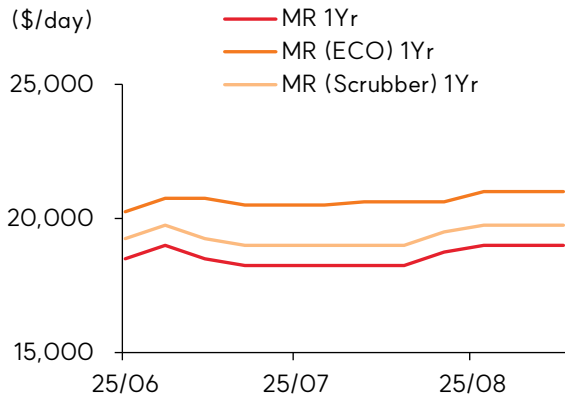
◎ 용선료(Timecharter Rate)

벌커(Bulke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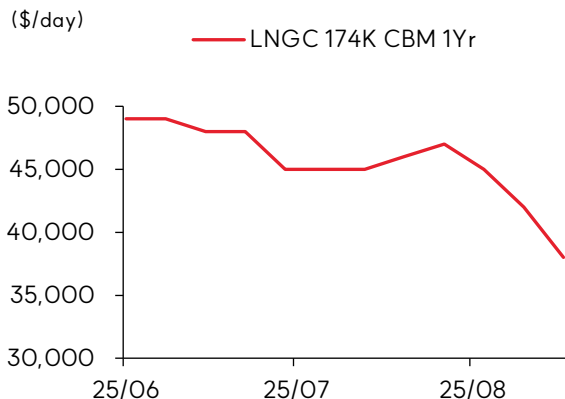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MR 탱커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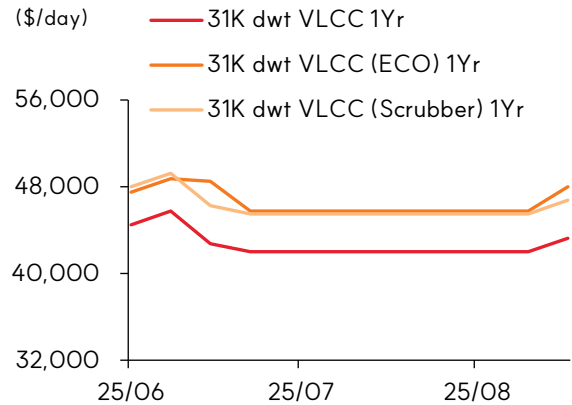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LNG 운반선(LNGC)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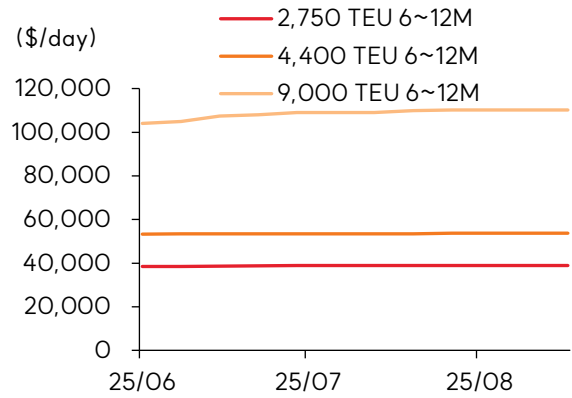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VLCC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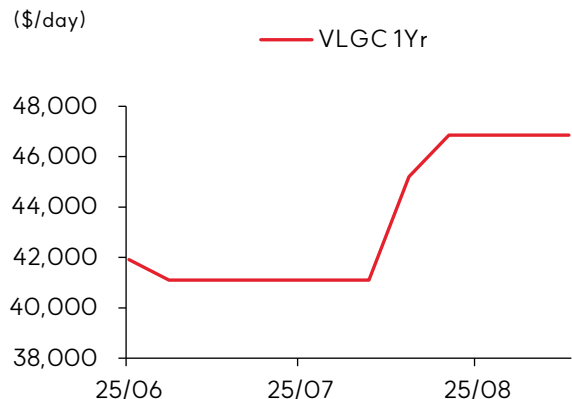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용선료



자료: Clarksons, SK 증권

LPG 운반선(LPGC) 용선료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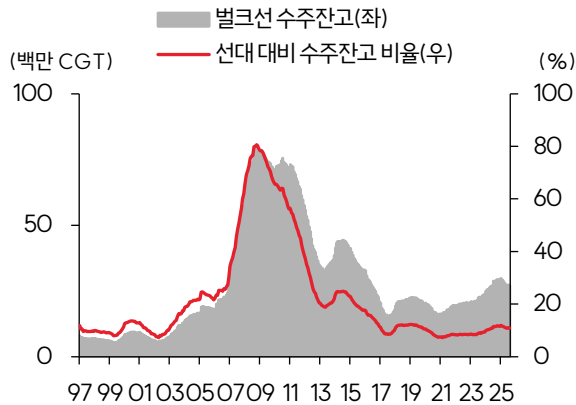
SK증권 조선훈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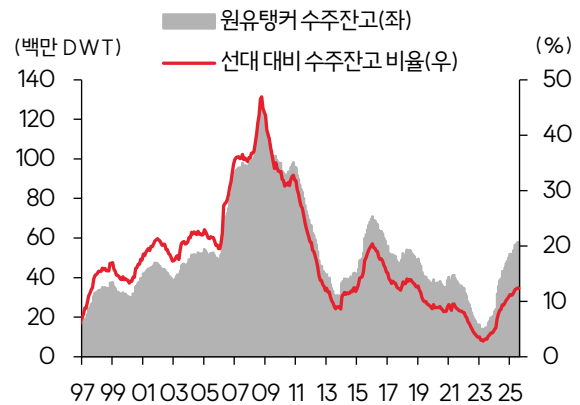
◎ 선종별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벌크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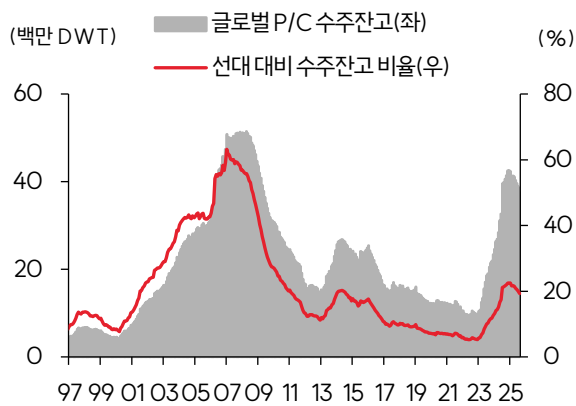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원유탱커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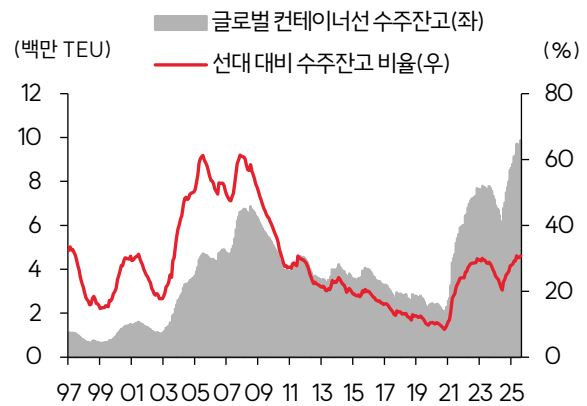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P/C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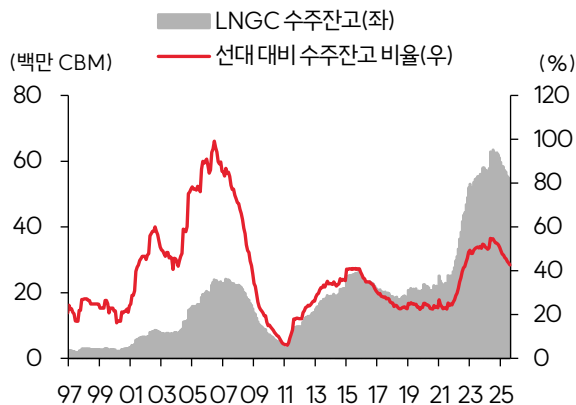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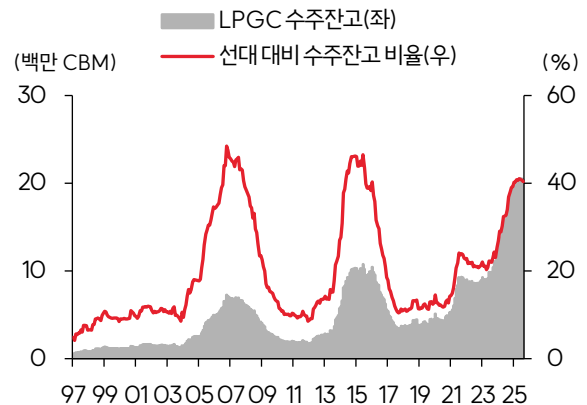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LNGC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자료: Clarksons, SK 증권

LPGC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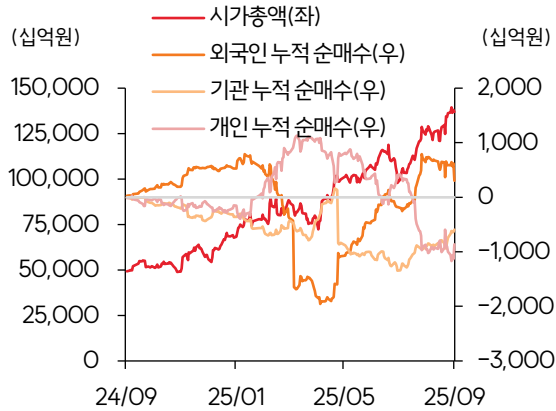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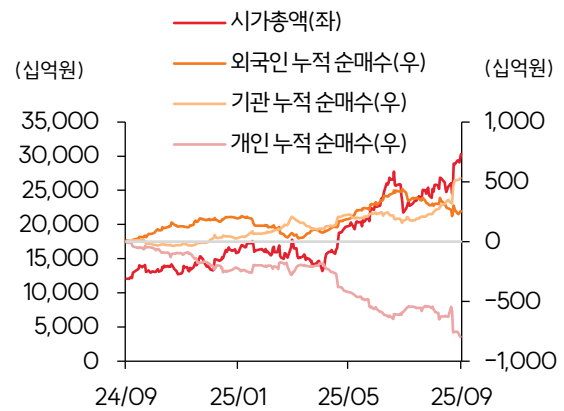
◎ 조선 커버리지 5사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조선 커버리지 5사 합산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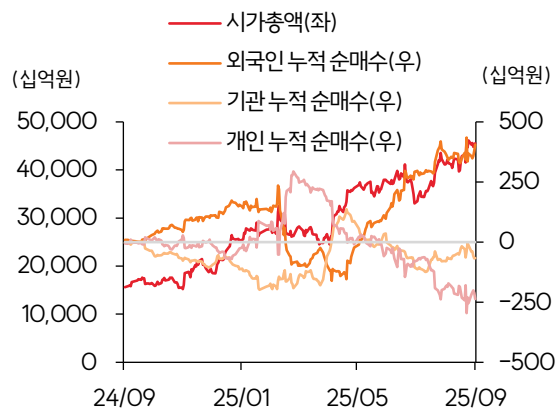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SK 증권

HD 한국조선해양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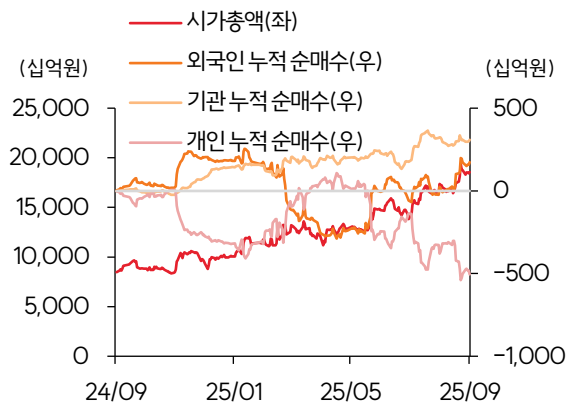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SK 증권

HD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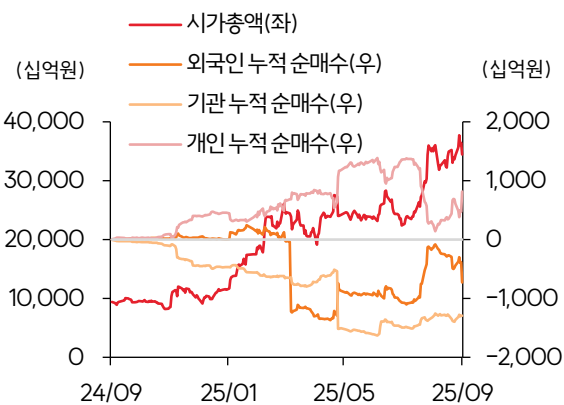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SK 증권

삼성중공업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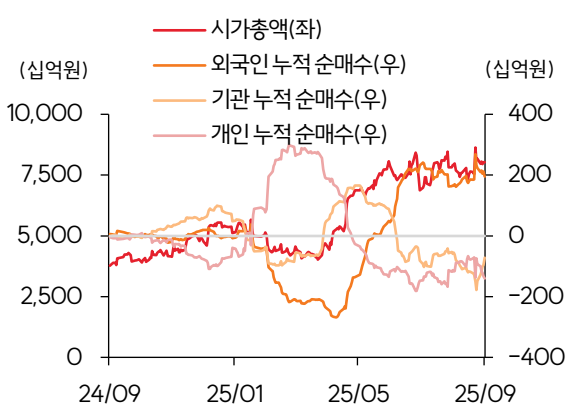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SK 증권

한화오션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HD 현대미포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한승한 수주산업 위클리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 / 3773-9992



◎ Coverage Table

종목명	증가 (원, pt)	시가총액 (십억원)	등락률						12M Fwd	
			1D	1W	1M	3M	YTD	1Y	P/B	P/E
코스피	3,205		+0.1%	+0.6%	+0.2%	+14.0%	+33.6%	+24.4%	1.0	10.6
WI26 조선	8,695		-0.2%	+1.0%	+10.0%	+30.9%	+98.4%	+162.4%	3.9	20.4
HD 한국조선해양	428,500	30,326	+1.5%	+5.4%	+22.4%	+34.3%	+87.9%	+155.1%	2.1	10.6
HD 현대중공업	513,000	45,541	+0.6%	-1.3%	+10.0%	+20.7%	+78.4%	+186.8%	6.9	26.5
HD 현대미포	201,000	8,028	-	-1.7%	+1.4%	+2.0%	+49.8%	+108.5%	3.2	20.8
삼성중공업	21,100	18,568	+0.7%	-0.9%	+7.7%	+26.0%	+86.7%	+114.9%	3.4	21.4
한화오션	112,500	34,472	-5.4%	+0.4%	-1.5%	+44.2%	+201.2%	+250.5%	5.1	29.1
한화엔진	45,600	3,805	+1.6%	-4.0%	+22.1%	+62.0%	+147.3%	+279.7%	6.4	30.2
HD 현대마린솔루션	220,000	9,862	+7.6%	+3.3%	+6.8%	+20.4%	+36.3%	+112.8%	10.4	29.0
HD 현대마린엔진	91,000	3,087	-2.3%	-1.1%	+19.1%	+104.5%	+272.2%	+452.5%	7.1	40.6
한국카본	33,150	1,721	-2.4%	+0.8%	+6.1%	+47.7%	+182.1%	+205.8%	2.5	16.6
동성화인텍	32,100	963	-2.3%	-0.2%	+14.8%	+14.6%	+115.1%	+186.9%	3.3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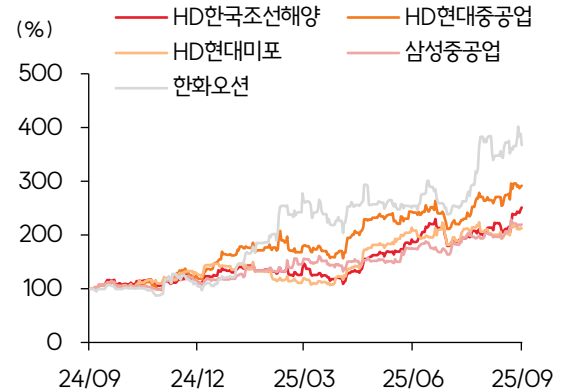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SK 증권

코스피 vs. 조선업 수익률 추이 (1yr)



자료: Quantwise, SK 증권

조선 커버리지 5사 주가 수익률 추이 (1yr)



자료: Quantwise, SK 증권

Compliance Notice

- 작성자(한승한)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